

철강산업

7월 중국 철강 PMI 발표 및 업황 점검

■ 7월 중국 철강 PMI 호조: 신규 주문 증가 + 재고 저점 수준 유지

7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철강 PMI는 54.9로 6월 [54.1]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림1> 이는 14개월 내 최고 수치이다. 특히 7월 신규 주문은 63.1로 6월 [58.4]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그림1> 이는 건설 및 기계 向 수요 호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2> 완제품 재고 PMI는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0.9]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1> 금번 PMI는 『1) 현재 중국 철강 수급이 Tight하고, 2) 건설 수요 호조에 따른 봉형강류 구조적 강세』를 시사한다.

■ 8월 업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

전술한 Tight한 중국 철강 수급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6월 말부터 시작된 가파른 철강 가격 상승은 달러 약세와 유가 급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위험 자산 강세이다. <그림3> 6월 말 [급격한 달러 약세 + 유가 급등] 이후 상해 열연 선물 거래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음은 물론이다.

Roll-Margin 등 주요 실물 지표는 분명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우호적 매크로 국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 뉴스에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 6~7월의 철강 가격 상승은 봉형강류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판재류 중심의 상승이었음을 상기하자.

이러한 관점에서 연초 대비 가격이 '하락'한 철광석, 원료탄 가격이 8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4> 전일 [7/31] 가격 반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1) 중국 철강 PMI 호조, 2) 허베이 강철, 중국 정부와 철강 산업 구조 조정 관련 100억 위안 규모의 펀드 [Great Wall Fund] 조성』 소식에 중국 대련 철광석, 원료탄 활황물 가격은 각각 7.6%, 5.7% 상승했다.

전술한 원료 가격 강세 및 Tight한 실물 수급으로 8월 철강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

Analyst 김윤상

(2122-9205)

yoonsang.kim@hi-ib.com

Analyst 원민석

(2122-9193)

ethan.won@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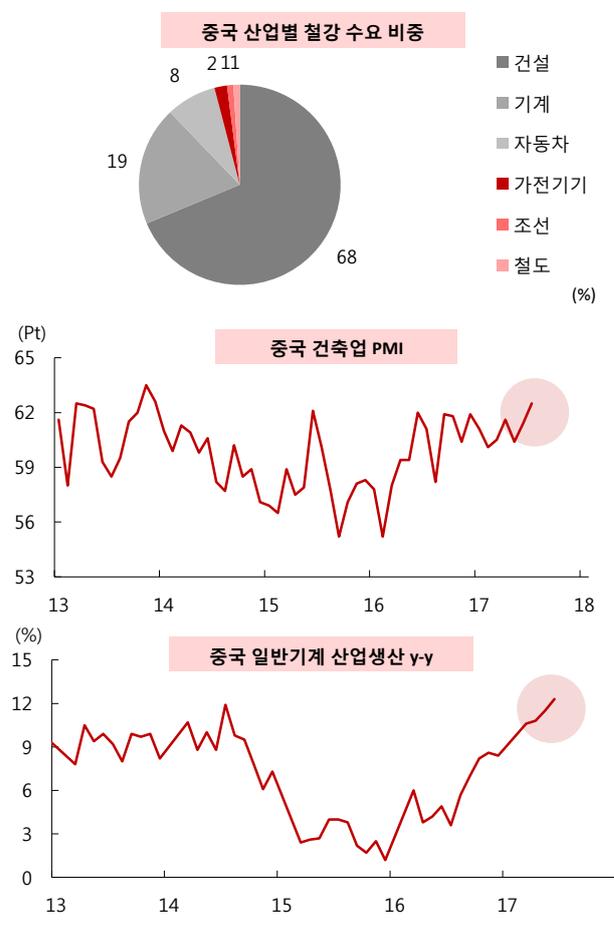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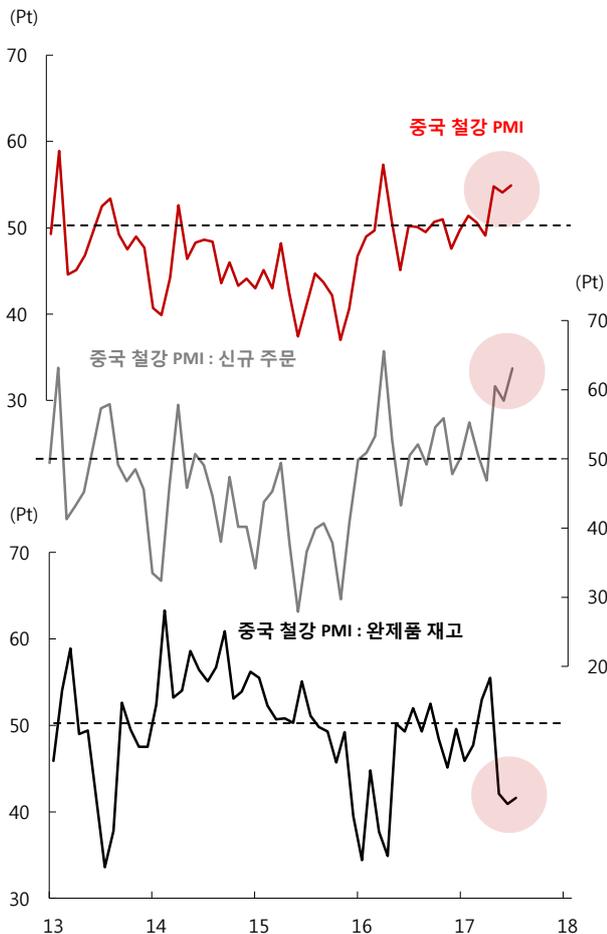
■ 다만 9월 업황 조정에 대비해야...

8월까지의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유효하다. 다만 9월부터는 업황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유가도 50달러를 상회했다. 여기에 가격 폭등에 대한 부담감이 실물 시장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봉형강 유통 재고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림5>

또한 지금과 같은 고마진 하에서는 중국 철강사 생산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림6> 이는 현재의 Tight한 수급 상황이 일정 완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7월 중국 철강 PMI 중 원자재 구매는 57.3으로 6월 [52.3]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또한 14개월 내 최고 수치이다. 향후 생산량 증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7>

<그림 1> 7월 중국 철강 PMI: 신규 주문은 증가하고 재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수급 상황이 Tight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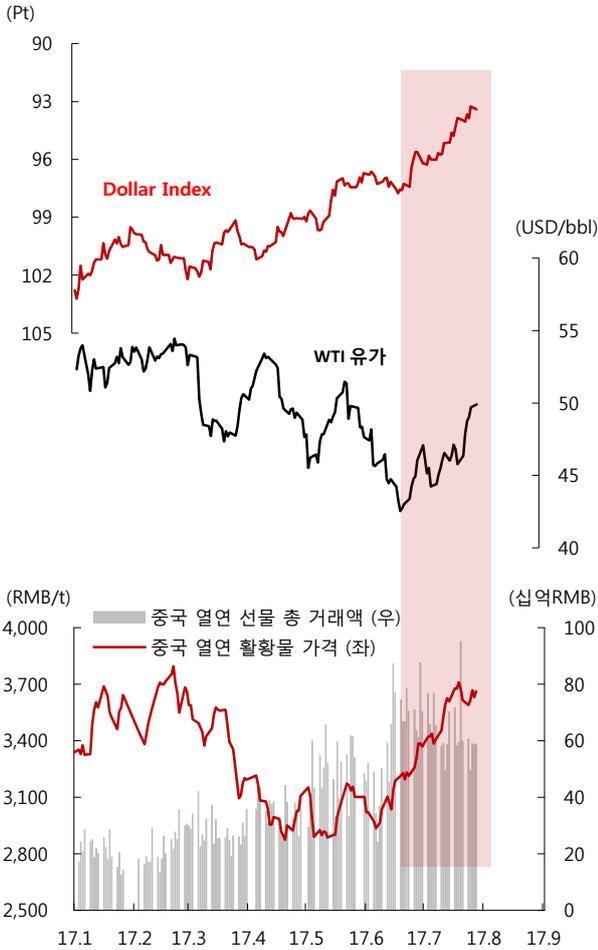
<그림 2> 신규 주문 증가는 건설 및 기계向 호조에 기인한다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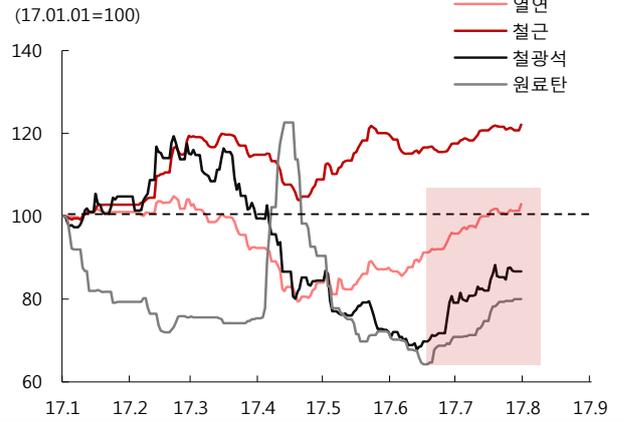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3> 유가 반등 및 달러 약세가 촉발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금번 철강 가격 급등의 핵심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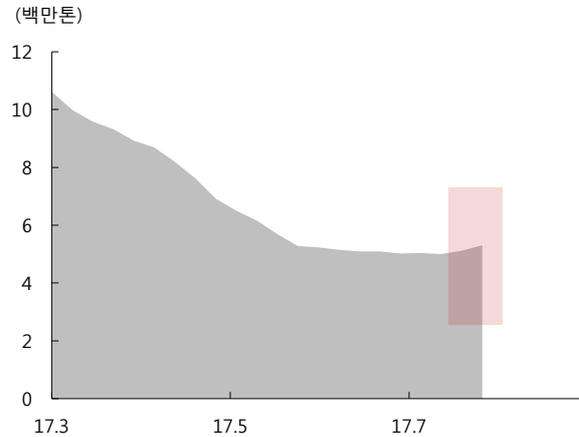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4> 우호적 매크로 국면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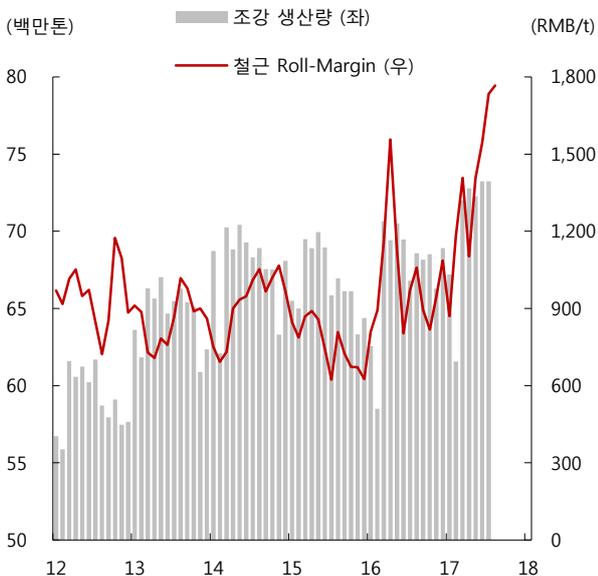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5> 중국 봉형강 유통 재고는 2주 연속 증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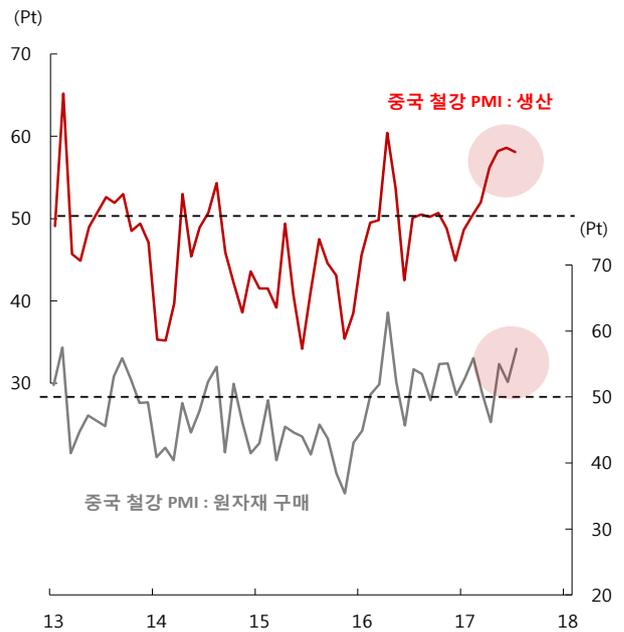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6> 현재와 같은 고마진 하에서는 생산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그림 7> 중국 7월 PMI 원자재 구매 부문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향후 생산량 증가를 시사한다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김윤상,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	10.8 %	-